

평화의 사도



재속 프란치스코 피닉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준비형제회 월보

Secular Franciscan Order of Phoenix
St. Daegun Andrew Kim's Forming Group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2008년 1월 (제 42호)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5. 아무도 교만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

- 1 오, 사람이여, 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의 모습대로 그대의 육신을, 또한 당신 자신과 비슷하게 그대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지어내셨으니(참조: 창세 1,26), 그분께서 그대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 2 그런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창조주를 그대보다 더 잘 섬기고 인식하고 순종합니다.
- 3 그리고 마귀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가 마귀들과 더불어 그분을 못박았으며, 그대는 지금도 악습과 죄악을 즐기면서 그분을 못박고 있습니다.
- 4 그러니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 5 실상 그대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참조: 1고린 13,2) 모든 이상한 언어를(참조: 1고린 12,28) 해석할 수 있고, 천상 일을 환히 꿰뚫어 볼 정도로 예리하고 명석하다 하더라도, 그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습니다.
- 6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혜에 대한 특별한 인식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해도 한 마리 마귀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천상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지금은 지상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 7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 생겼고 더 부유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은 그대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 8 반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참조: 2고린 12,5)이며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월례회: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4시, 회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영적 보조: 장민호 미카엘신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Minister: Michael Reidy (480)722-9446

입회기 양성교재 ‘폰테 콜롬보’

<제23과> 프란치스칸 가족과 형제회 방문

회칙 3장 형제회의 생활

제 26조 각급 평의회는 친교와 공동책임의 구체적 표시로써, 회헌에 따라 영적보조를 위한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는 수도자들을,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수세기에 걸쳐 유대를 맺어온 프란치스칸 네 가족 수도회의 장상에게 청해야 한다. 회장(또는 의장)은 평의회 동의의 얻어, 은사(Charisma)와 회칙의 준수에 대한 충실성을 강화하고 형제회의 생활에 더 큰 도움을 받기 위해, 회헌 규정에 따라 해당 수도 장상들에게는 정기적인 사목 방문을, 상급 형제회는 형제적 방문을 요청해야 한다.

프란치스칸 가족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룩하신 영적 가족의 하나로 프란치스코의 발자취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불려온 사람들을 **프란치스칸**이라 부른다. 프란치스코 가족은 크게 1회, 2회, 3회, 그리고 재속회 등 네개의 부류로 나뉘어진다. **1회 ‘작은형제회’ (O.F.M)**은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프란치스코와 함께 생활하려는 형제들의 수가 늘어나자 공동체 생활을 위해 1209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회칙을 구두로 인준받아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프란치스코 사후 가난의 이상을 실현하는 문제로 형제회 내부는 갈등을 겪게되고 1517년에 폰벤뚜알과 옴세르반테스로 1525년에 카푸친이 분리되었다. 1897년 교황 레오 13세의 일치 교령으로 1회는 **작은형제회(ofm), 카푸친 작은형제회(ofm cap), 폰베뚜알 작은형제회(ofm conv)**등 세 가족 구성원으로 각기 고유한 회헌을 갖는 프란치스코의 가족이 되었다. **2회 ‘성녀글라라회’(O.S.C) 또는 ‘가난한 자매회’(O.S.P)**는 프란치스코의 삶에 감화를 받은 글라라가 1212년 복음적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며 창설되었다. 다미아노 성당을 모원으로 삼고 프란치스코가 써준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성녀 글라라가 직접 작성한 회칙을 갖고 봉쇄 수도원 안에서 하느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관상생활과 형제적 사랑을 실천한다. 봉쇄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3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O.F.S), 율수3회(T.O.R), 수도3회**가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프란치스코의 뒤를 따라 회개와 보속의 삶을 살고자 했던 평신도와 재속 성직자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수3회**는 프란치스코에게 기원을 갖는 1회와는 달리 니콜라오 4세 회칙인 3회 회칙에 기원을 갖는 ‘회개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3회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독수자나 은둔자의 삶을 살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1323년 교황 요한22세에 의하여 인준되었다. **수도3회**는 사도적 활동 수도회로서 ‘회개화는 형

제 자매들’의 니콜라오 4세 회칙에 기원을 갖고 각 수도회의 회헌으로 생활하는 단순서원 수도회이다. **재속회**는 수도회는 아니지만 세상 안에서 복음적 권고를 따를 것을 선서하는 것으로서 교회에 의해 인가된 축성생활회 가운데 하나이다. 재속회는 재속3회와는 달라 축성생활을 하며, 수도3회와 달리 공동생활의 의무가 없고 엄격한 의미의 서약도 하지 않는다. 이는 1회 마 2회는 물론 3회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별개 가족이다.

영적보조 교회는 1회와 율수3회에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영적이고 사목적인 보조를 맡기고 있고 이들에게는 **상급지휘권**이 있다. 각급 형제회 평의회는 1회나 율수3회의 장상에게 영적보조자를 요청하고 장상은 프란치스코 영성의 전달과 양성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영적보조자**를 임명한다. 필요에 따라서 장상은 특별히 이 봉사를 위해 준비된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속한 교구 사제나 평신도 회원에게 맡길 수 있다. 영적보조자는 평의회 투표권을 가진 법적 구성원이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형제회의 방문 형제회 회장은 평의회 동의의 얻어 **형제적 방문**이나 **사목 방문**을 직상급 형제회와 영적보조자 위원회에 요청한다. 단위 및 지구형제회는 적어도 3년에 한 번, 국가형제회는 적어도 6년에 한 번 방문을 갖으며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할 수 있다. 방문의 목적은 프란치스칸 복음 정신을 활성화시키고, 은사와 회칙에 대한 충실성을 보장하며, 형제회 간의 일치와 유대를 강화하고 형제애를 돈독히 하는 데 있다. 방문자는 방문시 1) 목적과 계획을 알리고 2) 형제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회칙과 회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3) 정기적인 형제회 모임이 있는지, 친교는 잘 이루어지는지, 형제회가 교구와 협력관계에 있는지, 양성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봉사자는 직분에 성실한지를 점검 평가하고 4) 필요한 경우, 발견된 결함 부분에 대해 형제적 지적을 해준다.

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

♥ 대림피정하고 남은 \$80은 계속프란치스코회원으로 생활하시다 프란치스칸 수사님이 되신? 수사님께서 봉사하고 계시는 볼리비아의 아이들을 위해 도네이션 하기로 하였습니다.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2008년 1월 월보>

♥ 지난 12월 2일에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함께 웨스트 버지니아 Priestfield 피정 센터에서 대림 피정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성녀 클라라 형제회 2007년 12월 월보>

♥ 오늘 월례회에서 15명의 지원자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토론토 성요한 비안네 형제회 2007년 11월 월보>

♥ 형제회 총회 및 평의회원 선거. 회헌 76조에 의거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정기 총회 및 평의회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08년 3월 16일 오후 12시 30분

♥ 2월 17일(일) 월례회부터는 각자의 컵을 가지고 오십시오. 컵은 따로 준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2007년 12월, 2008년 1월 월보>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주님공헌 대축일 미사에서 “이 세상에는 소수의 사치하는 사람들과 다수의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며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세계화’가 결코 ‘세계질서’나 ‘세계 평화’와 같은 의미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아울러 “지구상 모든 이들을 위한 공동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톨릭신문 2008년 1월 20일 —

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

♥ 2008년 1월 저희 평의회와 월례회에 지구형제회 회장 리처드 빌라마나의 형제적 방문과 지구영적보조자 데이비드 수사님의 사목적 방문이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2008년 제 8차 북남미 연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 2008년 7월 31일—2008년 8월 3일

장소: Serra Retreat, 3041

Serra Rd., Malibu, CA

참가비: \$280.00

♥ 기도때 기억해 주세요.

남효정 울리아의 건강회복



<회계보고 12월말>

	항목	금액	합계
이월	10월말		1081.65
수입	회비 (10월)	\$180.00	
	소품 잔액 이월금	\$39.00	
	회비 (11월)	\$180.00	
	성탄행사 수입금	\$80.00	
지출	미사 예물 (10월)	\$50.00	
	Peace형제회 성탄	\$50.00	
	음료수 (11월)	\$8.12	
	건축 헌금 (12월)	\$100.00	
잔고			\$1352.53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식으면서 끝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라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되었다 하는 것이 맞겠지요. 관심은 생겼다가도 없어지곤 합니다.

감정으로 시작되고 그 감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간의 사랑은 관심
첫눈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게

사랑은 의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M.E.에서 “사랑은 결심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
에서 출발하며 이 결심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할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평생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의를 지키겠다고 각자의 자유의지로 하느님 앞에서 약
속합니다. 감정을 약속 할 수는 없겠지요.

사랑이 혼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사랑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간에 관심이 식어
갈 때일수록, 하느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했다는 사실을 잊지않고 그 혼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 할 때 식어가던 부부간의 관심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혼인서약은 조건없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원할때, 필요할때, 상황이 맞을때만 사랑하겠다는
조건부 서약이 아닙니다. 남편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 된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섬기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성사안에 현존하실 뿐아니라 남편과 아내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서로가 상대를 그리스도 보듯이
바라봐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받아들임으로써
혼인전의 각자 자신은 없어지고
부부로서의 일심동체만이
남게되는 것입니다.

김종덕 미카엘

